

수영진흥센터 등 스포츠시설 집적화

광주수영대회 성공, 레거시에서 찾다

<7>광주수영대회 개최 이후 사후활용 과제

올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 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폐막 이후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기념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고 계승하는 레거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9개의 레거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레거시 프로그램은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수영 네트워크 구축, 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무등배마스터즈수영대회(가칭) 창설, 무등배수영선수권대회(가칭) 창설, 수리달이 야외수영장 건립, 엘리트수영선수육성생태계 조성, 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수영대회타임캡슐공원 조성 등이다.

◇광주,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경험만 3차례=광주시는 2002년 월드컵,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역시 2002년 월드컵,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육상의 메카'라는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회 개최로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대구스타디움,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육상진흥센터 등 스포츠시설을 집적화해 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육상대회를 치루고 남긴 유령 레거시인 대구육상진흥센터와 국내 유일 종합 스포츠 전시관인 대구스포츠 기념관은 주목할 만하다.

대구시가 육상진흥센터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법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었다. 유령의 레거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 수반이 불가피해 수영진흥센터

9개 레거시 프로그램 준비

북한 참여로 평화 레거시 기대

주경기장 관리 수영 인구 확대

터 건립 사업도 필요한 부분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를 밑거름으로 수영인구 저변확대, '수영의 메카'로 부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가 과제라 남아있다.

◇남북단일팀·북한 참여로 평화 레거시 '기대'=수영대회를 목전에 앞둔 광주시가 간절히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남북단일팀 성사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단일팀 구성을 이끌어내면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적 자산을 남겨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15일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상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의 친서를 북한 체육상에게 전달하는 등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을 초청했다. 현재 복잡한 북미 관계 등이 얽혀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로 인해 수영대회 참가에 대한 여부는 엔트리 마감 직전까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마스터즈 대회 엔트리 마감 등록일 6월24일까지 북한의 참가 확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수영대회의 슬로건 'DIVE INTO PEACE(평화의 물결 속으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실제 북한선수단의 참여로 '평화'라는 무형적 자산을 남겨지길 기대해본다.

국제수영연맹(FINA)과 스포츠 강국 이탈리아의 수영연맹에서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참여로 빅 이벤트가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영 저변 확대에 무형적 레거시 창출=스포츠 강국 이탈리아는 1930년대 지어진 시설로 1994년, 2009년 수영대회를 2차례 개최하는 등 이미 수영인구의 저변이 확대돼 클럽·동호인들의 활성화로 저력을 갖고 있다. 수영대회 당시 주경기장으로 이용된 포로 이탈리아(Foro Italic) 수영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스포츠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플라미니아 쿼디탈리아수영연맹 국제부장은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조금 더 부업이 돼 수영인구를 성장시켰지만, 이탈리아인 자체가 수영을 좋아하고 즐기기에 동호인을 포함해 500만명 정도가 수영인구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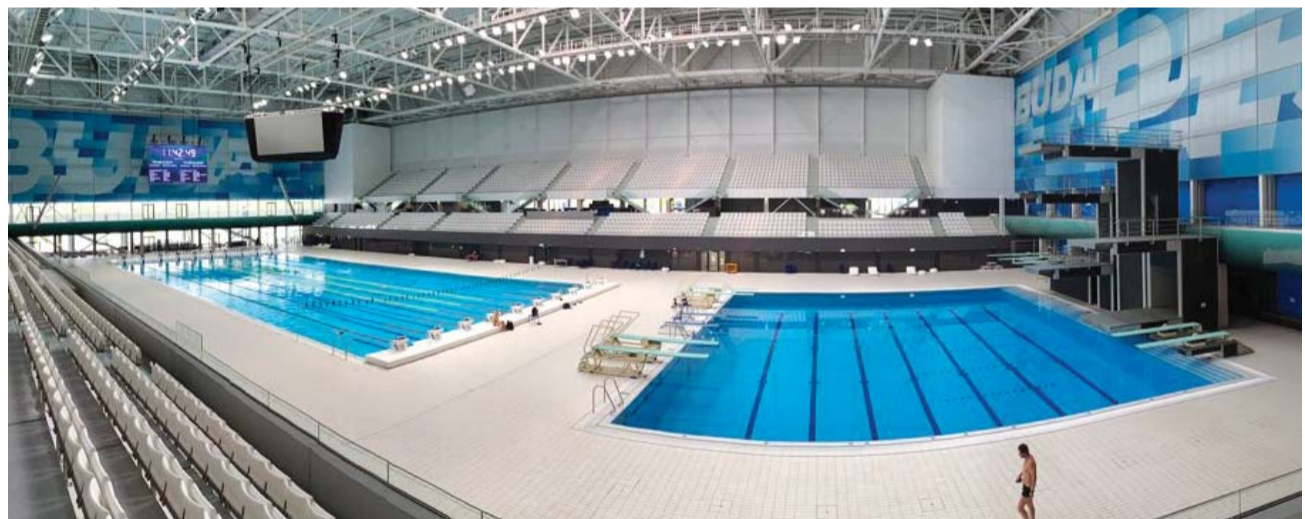
이처럼 수영대회 개최 이후 주경기장은 상징적인 시설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 유행적 레거시의 하나로 수영 인프라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영연맹(FINA) 코널 마르클레스크루 사무총장은 "우선 수영시설 부분이 발전할 것이며, 수영인을 육성하고 참여자를 늘렸으면 한다"라며 "수영 경기시설이 좋으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인지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회가 끝난 뒤에 수영진흥센터 관련 국·시비 논의를 할 것이며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들었다"며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은 진흥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공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전국민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사진은 수영대회 폐막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하고 있는 형리리 부다페스트 두니아레나의 모습.

“신안 압해~해남 화원 해저터널, 교량으로 변경해야”

전남도·목포시·해남군·신안군, 정부에 공동 건의

국도 77호선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결 구간 중 해저터널 사업을 교량 건설로 변경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대상지인 신안, 목포, 해남 등 서남해안을 직접 둘러보며,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직접 요청한 바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 해남군·신안군과 협의해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결구간 중 기존 해저터널을 교량으로 변경해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국도 77호선이 관광도로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해저터널보다는 신안 천사대교와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형 교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최근 신안, 목포, 해남 현장을 직접 찾아 "천사대교 개통을 계기로 전남

의 아름다운 섬들을 수준 높은 디자인의 교량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해저터널보다는 교량이 더 낫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도 77호선 압해-화원 연결도로는 왕복 2차로로 신안 압해, 목포 울도·달리도,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13.4km 구간이다. 압해도와 울도를 연결하는 길이 740m 교량 1개와 울도와 달리도를 연결하는 길이 1.39km 교량 1개, 목포 달리도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3.08km 해저터널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으나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해안관광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해 수면위에 떠 올랐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김영록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으며,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돼 현재 기획재정부와 KDI로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4265억원으로 이 구간이 완성되면 신안과 목포,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남 화원과 목포 달리도를 연결하는 구간의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교량 건설로 바뀌어야 한다는 변경 요구가 높아 향후 사업비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 전체 구간 5.17km 중 해저터널 구간은 목포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이다. 선박 왕래가 잦은 곳인 만큼 애초 계획이 해저터널로 됐으나, 관광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이곳을 교량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진행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본계획용역에 이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기념주화 실물 공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광주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주화 실물 공개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영택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동부권 통합청사 끝내 '반쪽짜리' 공모

여수 '보이콧', 광양 의회 성명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끝내 '반쪽짜리' 공모로 입지를 결정하게 됐다. 특히 후보지 공모에 나서려던 자치단체의 경우 '유치 신청 철회'에 이어 추진 과정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까지 검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일정도 미뤄졌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15일로

예정됐던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후보지 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 불참한 데 이어 통합청사 유치를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수시는 앞서 '통합청사 후보지 평가기준'과 관련, "특정 시에 치우친 평가 기준을 설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건립 취지를 고려한 기준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의미한 유치 신청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도 평가위원을 뽑는 자리에 불참

하는 등 유치 철회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특히 광양에서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청사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조짐도 감지된다. 이형선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입사회 회기중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광양시의 '보이콧' 결정으로 15일 발표됐던 후보지 평가위원 선정조사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당장, 17일까지 받기로 했던 후보지 신청 기간을 24일로 늦췄고,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현장 실사 등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밀하지 못한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